

**진** 통제를 패치로 바꾸었다. 집이 점점 넓어진다. 통증에서 벗어나 잠시 숨 돌릴 때마다 여자는 물건을 잃었다. 자잘한 잡동사니에서 소파와 장롱, 텔레비전과 오디오까지. 물건들은 제 몸집과 나이에 따라 크고 작은 그림자를 남기고 사라졌다. 모형 메타세콰리아 같은 진초록 울마는 라흐마니노프곡이 흐르던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후로 빠르게 운기를 잃어갔다.

얼마나 더 이 집에서 머물 수 있을까. 사흘씩 쉬지되던 패치조차 간격이 짧아지자 방문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패치를 교체하기 전에 미리 경유용 진통제를 먹여보지만 두 시간은 항상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어지러기 옮겨 붙인 패치자극으로 붙여진 가슴짜를 만지며 여자는 서둘러 전화를 집어 든다.

-이번엔 컴퓨터예요.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암의 재발이었다.**

**차라리 눈이 멀고 더 살아남는다면...**

**내년 봄에도 햇살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어딘가에 좀 더 유익하게 처분할 수도 있을 텐데 귀찮았다. 여자는 가장 손쉬운 쪽을 택했다. 재활용센터. 어쩌면 귀국 전 여름의 기억 탓일지 몰랐다. 햇빛이 선명히 반짝이던 문구, '재생자원(再生資源)'. 여자는 매일같이 담에 젖어 깨어났다.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채 가까스로 잠이 들면 그새 잠새 때들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잠을 깨웠다. 축축한 습기와 새벽 공기에 진저리치며 창문을 닫기 위해 창가에 서면 이미 숙소 밖 담장 밑에 즐비해있던 삼륜차들. 경운기 같이 생긴 그 짙은 모서리에는 노란 형광색으로 선명히 돌출해 감 하는 단어, '재생자원'이 있었다.

삼륜차 주인들은 짐칸을 차지하고 누워 졸곤 하늘과 손바닥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작은 가로수아래 옷통을 벗어든 채 트럼프를 하다가도 이내 삼륜차에 올라 종이박스로 상체를 덮은 채 잠이 들었다.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배짱이 그들을 천연덕스럽게 만든 것인지, 여자는 그들이야말로 재생자원 같았다. 그러나 해질 무렵이 되면 그들은 언제 모았는지 종이 박스며 빈 물병과 음료수 캔으로 가득 찬 수레를 끌고 득의양양하게 철수했다.

어느 날 문득 여자는 그렇게 돌아갈 곳이 있는 그들이 부럽기 시작했다. 다투는 듯 높은 그들의 고음과 욕설, 웃음소리가 갑자기 부러웠다. 피아벌과 먼지 속에서도 태평한 그들을 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오래 바라봤다.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암의 재발이었다. 겨우 1년만이었다. 암의 재생만이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인정했을 때, 여자는 얼토당토않게 삼륜차들이 떠올랐다. 다시 떠나고 싶었을까.

어디로? 어디로 말인가? 내가 들어갈

곳은 없네. 나갈 곳도 없네. 이라고 있을 수밖에. 멈춰 선 회색 베레모 노인, 박제된 새처럼 시선을 끌던 그가 웃는다. 허, 내가 백번 낫지. 난 이렇게 맘대로 견고 있었어. 여자는 노인을 흉내 내듯 눈을 감고 천천히 거실 안을 걸어본다. 마침 창가로 흘러든 햇빛에 눈이 눈부셨다.

나도 눈이 멀었으면. 차라리 눈이 멀고 고통 없이 더 살아남는다면... 내년 봄에도, 그 다음 봄에도 이 무사한 햇살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자의 눈꺼풀 위로 온갖 초록햇빛이 타 임랩스처럼 펼쳐진다.

눈 먼 노스님이 낡고 닳은 겨울이불을 덮은 채 꽃꽂이 앉아있다. 감긴 두 눈과 동그렇게 패인 눈자위가 해방의 커다란 눈구멍 같다. 구들이 식은 지 오래인 바닥은 냉랭하고, 묵묵한 초 두 개만 달랑 천수경 옆에 놓여있다.

봄이 많이 왔는가? 아직 덜 왔습니다. 썩이 덜 자랐어요. 진달래도 안 피었구요.

그럴 것이어. 이번 겨울이 좀 추웠나.

환한 초록빛줄기들이 장방형 범당 안을 사선으로 가로지른다. 여자는 미간을 좁히며 빛을 따라간다. 잎 없는 어린 비파나무 아래 연초록 돌나물과 어린 딸기나무 잎들이 등성등성 돌아나온다. 사이사이에 곰보배추가 푸른빛을 내뿜고 있다.

스님, 곰보배추로 감치 담가볼까요? 무슨, 효소나 담그는데 쓰이지. 그래도 배추는 배추데요, 사람도 그렇게 제 운명을 가지고 나는 걸까요?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뜬다. 곰배배추로 나 다시 태어날까. 여자는 창밖의 빛을 흡입하듯 창가에 바짝 붙어 선다.

-어? 이거 아주 좋은 건데요? 컴퓨터 기기 앞에 선 재활용 센터 직원 이 여자를 바라본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여자는 노트북까지 건네고 만다.

-저기, 어디 많이 아프신가본데...

벌써 세 번째 방문인 그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는가보다. 말도 못 붙이던 그가 오늘은 꽤 머뭇거리다. 그럼 절 한번만 안아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안기고 싶다. 이런 것도 성욕이라면, 여자는 시시각각 성욕을 느끼는 중이었다. 말로 되어 나오지 못한 그녀의 끈끈한 눈빛이 당혹스런지 그가 땀을 흘린다.

-얼른 가져가세요. 싫다면 다른 데 연락할 테니까요.

여자는 냉랭하게 돌아서며 냉장고에서 박스 두 병을 꺼내든다. 그에게 하나를 건넨다. 그는 더욱 난처한 표정이 된다. 두 손으로 작은 박스 한 병을 비비고만 있다. 흠, 그 속에 뭐라도 들었을까봐? 여자

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본다. 그가 얼른 고갤 숙여 마개를 비튼다. 여자의 눈자위에 실핏줄이 번진다. 두 눈알이 빠질 듯 아프기 시작한다. 여자는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본다. 그는 오늘따라 당황해 한다. 흥, 이제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가 컴퓨터 본체를 현관 밖으로 내놓기도 전에 여자는 서둘러 작별인사를 한다. 그의 튼실한 어깨가 다시 그녀의 시선을 붙든다. 지금 순간 여자는 햇살 한 자락, 풀 한포기, 지상의 무엇이라도 다 붙들고 만 싶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거 같은데.

그가 여전히 머뭇거리다. 무엇이 그를 멍청하게 하는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옷자락을 당기고 있는가. 여자는 자신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긴다. 손에 들린 가발을 총채처럼 흔들며 소리친다. 가만 맡아, 어서 가! 그가 허둥대며 구두를 쥔다. 탕! 문이 요란하게 닫힌다.

그가 돌아서온다. 그녀는 무너지듯 그의 가슴에 안긴다. 숨을 헐떡인다. 온 몸으로 돌고 도는 통증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다. 아아, 견딜 수 없어. 나를 좀 놔 줘. 그러면서도 그녀 손은 갈고리가 되어 그를 붙든다. 나를 잡아 줘, 나를 꼭 잡아 줘. 그녀는 주저앉는다. 거실 모서리의 물딩부 분이 등허리를 자극한다. 이제 한차례 통증이 지나나보다. 바닥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진다. 눈을 뜬다. 아무도 없다. 노트북마저 사라진 텅 빈 집. 터영. 터영. 집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에는 남자가 급히 나가면서 흘뜨려 놓았던 흰 운동화가 제각각 흩어져있다. 다 버리고 남은 운동화 한 켤레. 여자는 엉금엉금 기어가 빠르게 정돈한다.

**네** 들어갈게요... 마침내 방문간호사에게 완화 병동 입소를 약속했다. 병실만 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진행될 것이다. 여자는 새삼스럽게 실재를 뒤돌려본다. 책장은 흔적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장식장과 텔레비전이 놓인 벽면도 마찬가지로. 겨울옷가지들과 히터가 빠져나간 옷장, 접시와 그릇들이 비어버린 수납장, 액자가 사라진 벽의 못 자국들...

물건들도 저렇게 제 흔적을 남기는데, 여자는 윤기 잃은 울마 화분을 잠시 노려본다. 한그루만으로도 푸른 원시림을 연상시켰던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갈색으로 변했다. 여자는 손으로 쓸어본다. 까칠한 줄기에서 아직 향기가 난다. 그녀는 더 나아가 싶을지라도 엄마는 항상 처음 드시는 것이니까요. 그 좋아하시는 팔죽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사드릴 수 있을까요?

사춘기 시절 이후 지금까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소설쓰기였지만 삶의 항상 소설보다 1순위였습니다. 지지부진, 지리멸렬한 제 소설쓰기에 대한 변명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올곧은 글쓰기를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단 한사람의 이해와 공감만으로도 저는 소설쓰기의 모든 외로움과 노역을 견디는데 단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여자는 조용히 속삭인다. 내일부터는, 행복해야지. 속세에서 행복하기를 바랐던 하이즈는 이 시를 쓴지 두 달 만에 철길 위에 목을 놓았다. 여자는 시인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여자는 시인보다 이백 배, 이전 배 일찍 잊힐 것이다.

봄이 오면 꽃이 피리. 여자는 내년 봄을 생각해본다. 자신이 죽고 없는 내년 봄. 그녀가 없어도 꽃은 필 것이다. 내년엔 필 봄꽃을 미리 보아줘야 한다는 듯 여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버거지를 쓰고 집을 나선다.

시야가 자꾸만 희뿌연고 어지럽다. 노인 또한 예외없이 공터에서 홀로 걷고 있다. 여자는 자동인형처럼 그에게 다가간다. 손목에 걸린 소형 라디오를 머그잔으로 여길 만큼 시력을 잃었다니. 어쩌면 그에게서 느낀 생기도 작각이었을까.

-햇살이 눈부셔요, 할아버지.

사월의 쨍쨍한 햇빛 속에 화단이 철쭙이 붉게 녹아내리고 있다.

-어, 어.

그녀를 알아챈 노인은 이제, 어, 어 소리밖에 할 줄 모른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가락이 움직여진다. 그녀도 노인의 손가락 감촉을 빠르게 재생한다.

노인이 멈춰서는 새에 그녀는 흰 뿔뿔 줄을 걷어 걷는다. 감을 때마다 햇빛이 피시작 사그라지며 찾아온다. 기세등등한 흰빛을 잃어버린 뿔뿔줄은 이제 아무 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니다. 라이터 한 방이면 활활 타오를 나일론 끈이다.

-할아버지, 줄을 감았어요.

-어? 어.

-가시게요.

감을 줄을 노인 손에 쥐어주고 팔을 가볍게 잡는다.

-어, 어? 이쪽이 아니어. 방향이 틀렸어.

**잠이 들면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장롱 얼룩이 돌아가신 부모님 형상 같다. 한마리 새가 솟구쳐 날아간다. 여자는 눈을 번쩍 뜬다.**

침묵을 꿋고 노인이 항의하듯 멈춰 선다. 고집 센 영감탱이. 그녀는 가법계 짜증이 이는 걸 참는다. 짐작할 필요가 있다.

-안보기도 잘 아시네요.

노인이 긴장을 푸는 기색이다. 청청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아직 시간이 많은데, 저희 집에서 차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 그러자고...

여자는 노인의 옆구리를 바짝 낀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노인이 느릿느릿 움직여 준다.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며 웅얼거리다. 이럴 필요 없는데, 어, 참, 엘리베이터 상자는 금방 열린다.

-301호예요.

여자는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인다. 노인이 아, 하며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노인을 식탁 의자에 앉힌 다음 여자는 부엌 창가에 선다. 노인의 집 출구가 정면

으로 보인다. 아무도 없다. 화단에는 철쭙만 만개해 있다. 붉고 흰 꽃무더기 위로 햇살이 흐른다. 꽃잎과 푸른 나뭇잎들을 머금은 햇빛이 형형색색으로 허공에서 산란한다. 석상처럼 굳어있던 노인. 마른 나뭇가지 같은 팔 하나가 허공에 떠 있던 노인. 여섯시 오 분 전 시계바늘로 멈춰 선 회색 베레모의 노인. 그가 지금 순간이동이라도 한 듯 그녀 앞에 앉아있다.

여자는 부엌창가의 블라인드를 내린다. 실내가 일시에 그늘진 듯 서늘해진다. 눈꺼풀 위로 명암차이를 감지하는지 노인의 눈이 바쁘게 깜빡인다.

-박카스 드릴까요?

노인이 뭐라 대답하기 전에 여자는 박카스 뚜껑을 연다. 노인의 팔목에 감겨있는 라디오 줄을 마저 풀어 식탁위에 놓은 다음 박카스를 노인 손에 쥐어 준다.

-하하.

낮익은 음료가 노인을 웃게 만든다. 불안이 가신 저 천천히 미소. 좋은 일이다. 여자는 노인을 따라 박카스를 단숨에 들이킨다. 뱃속이 훗훗 뜨거워진다. 준비한 과일들이 생강났지만 더 이상 냉장고문을 열고 싶지 않다.

여자는 호흡을 가다듬는다. 손은 따뜻할까? 마디마디 빠마디는 온전한 것일까? 현기증을 가라앉힌 여자는 무릎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간다.

노인의 손을 잡는다. 손이 따뜻하다. 그의 손이 따뜻하다는 것은 여자에게 용기를 준다. 노인의 손을 젓가슴 위로 가져간다. 노인은 놀라지 않는다. 지켜보자는 듯 멈춰있는 노인의 손. 철사로 뼈대를 만들어 놓은 의수 같다. 여자는 노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비틀어 그녀 가슴을 움켜쥐게 만든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피가 돈다.

비로소 혐오감을 통제한다. 노인의 손아귀에 들린 첫 거죽이 있는 힘을 다해 부른다. 앙상한 가슴뼈는 가슴뼈끼리, 팔 다리 네쌍의 마른 가지는 가지끼리 열을 내기 시작한다. 부스들처럼 뜨거워진다.

한 숨의 불길, 한 톨의 피가 그녀를 촉박하게 만든다. 정신은 또렷해지고 고통은 더욱 극심해져간다. 고통은 모든 것을 점령했다. 마지막 남은 한 숨마저 빼앗기기 전에, 여자는 제 손으로 육신을 갈기리 찢어 산화하고 싶었다. 그렇게 사라지고 싶었다. 여자는 눈을 꼭 감는다.

스님이 걸어간다. 허정허정 걷는 그를 따라 그녀도 소리없이 걸어간다. 스님이 걷는다. 느릿느릿 걷는 그를 따라 그녀도 걷는다. 숲이 깊어진다. 인적 없는 깊은 숲속, 사위가 저물어간다. 담뿔 우거진 수풀속으로 스님이 기어간다. 그녀도 따라 기어간다. 스님이 여원 어깨를 들썩이며 땅을 판다. 그녀도 땅을 판다. 두 손 가득 피가 나게 땅을 판다. 낙엽 몇 장 그녀의 스님이 홀로 늙는다. 그러던 몇 가지의 낙엽으로 얼굴을 덮는다. 밤이슬이 내리고, 어디선가 승냥이가 울부짖는다. 이마가 넓고 주둥이가 뾰족한 붉은 색 승냥이가 반짝, 나타난다. 연이어 회갈색, 황갈색, 홍갈색 승냥이 떼들이 스님을 파헤친다. 여자는 그만 그 자리에서 흐르르 물이 되어버린다.

가슴속에서 핵이 폭발하는 파동이인다. 여자의 두 눈에 광채가 난다, 꺼지기 전 마지막 불꽃처럼 일렁인다. 여자가 노인 위로 올라타다. 노인의 입술을 열고 여자는 마지막 폭발음을 토해 넣는다. 여자는 이제 노인의 검은 성기를 움켜쥐는다. 제 몸이 맞춰보고 애를 쓴다. 노인이 그녀를 안아주고 뒤집기를 한다. 그녀의 온 존재가 다시 한 번 저항한다. 수치와 두려움, 환희와 안도가 북받치는 감정의 혼재.

아오오오. 삼륜차들이 질주하기 시작한다. 흰 목련꽃잎이 흐르르 쏟아져 내린다. 번쩍거리는 금빛 수를 놓은 삼륜차들이 흰 꽃잎 속에서 끝없이 행진한다.

-주책맞게 어디를 함부로 다녀어, 가만있지 않구실랑.

-어, 박카스 하나...

노인의 목소리가 필요이상 크다. 블라인드가 걸린 부엌 쪽창으로 무사한 햇빛과 함께 들어오는 창 밖 소음들. 적요한 시간 속에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 소리들.

노인이 할말과 함께 나란히 앞 동 입구로 사라져간다. 검은 입. 두 노인을 삼킨 검은 입을 바라보며 여자는 진통제를 입에 털어 넣는다. 창을 닫는다. 블라인드를 다시 내리고 천천히 침대로 돌아온다.

이대로 잠이 들어,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았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장롱얼룩이 돌아가신 부모님 형상처럼 다가온다. 여자는 눈을 감는다. 길이 열린다. 좁다란 길 위에 회색베레모 노인이 서있다. 노인이 발가락을 꼬지락거리자 파드다, 한 마리 새가 솟구쳐 날아간다. 어느새 노인 대신 삼륜차 한 대가 그녀 앞에 서 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노란 글귀에 흘러 다시 보니 이번엔 황금마차다.

여자는 눈을 번쩍 뜬다.

<끝>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독자의 공감으로 창작 고통 잊어”**

당선 소식을 전하는 기자님께 제가 꽤 사무적으로 응했던 것 같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느라 이리저리 전화문의 중이어서 제가 무척 딱딱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공감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밑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소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의 봄에 쓰인 것으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가슴 속에 멈춰있던 것이었습니다. 발행 후 1년 만에 가진 아버지는 끝내 봄을 맞이 못하셨지요. 해묵은 작품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이 미욱한 딸의 등을 아버지가 떠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엄마의 선물 같기도 합니다. 정작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 딸에게 말이죠. 울컥했

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실은 주간보호차가 도착했으니까요.

팔죽 드셨나는 제 물음에 엄마는 천진 무구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이었지요. 시설에서 드셨을지라도 엄마는 항상 처음 드시는 것이니까요. 그 좋아하시는 팔죽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사드릴 수 있을까요?

사춘기 시절 이후 지금까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소설쓰기였지만 삶의 항상 소설보다 1순위였습니다. 지지부진, 지리멸렬한 제 소설쓰기에 대한 변명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올곧은 글쓰기를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단 한사람의 이해와 공감만으로도 저는 소설쓰기의 모든 외로움과 노역을 견디는데 단련되어 있으니까요.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단편소설의 시적 묘사 돋보여**

소설은 사람 이야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다. 그리하여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작가의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기법, 플롯)’와 ‘창작자가 사람과 세상에 갖는 태도(가치관, 세계관, 창작관)가 기본적으로 작동되었는가’. 제목의 기술, 소재 선택 능력과 그것을 주제로 끌어올리는 집중력, 문장, 묘사력, 그리고 기법 운용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에 입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은 모두 11편이었다. 이중 완성도와 미학적인 독창성 면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작품은 ‘물이라 씩’과 ‘전화(遷化)’ 두 편이었다.

‘전화(遷化)’는 단편 소설의 미학을 갖춘 작품이다. 죽음에 직면한 삼십대 암말기 환자 여성과 실명 상태의 노인을 봄의 햇살과 꽃의 흐름 속에 배치하고

중점서적 장면화하고 서사로 이끈 기술이 뛰어나다.

80매 내외 분량의 단편소설 양식이 전체 소설 장르에서 시(詩)에 비견된다면, ‘전화(遷化)’가 그에 해당된다. 피어나는 꽃(또는 빛)과 죽어가는 생(生)의 대비,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는 과정(遷化)과 재생(再生)의 법칙에 대한 치밀한 듯 담담한 묘사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대비와 묘사들로 짜인 단락들이 긴장력을 유발하고, 한 편의 삶이 있는 작품(Texture)으로 형상화되어 인상적이다.

신춘문예는 창작을 통한 신인 발굴의 장(場)과 축제의 의미를 겸한다. 한 해 혼신을 다해 작품을 생산하고 투고한 수성자와 응모자들 모두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당선자 이연초씨

- ▲1963년 장흥 출생
-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



함정민 작가

- ▲1964년 전북 김제 출생
-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광장가는 길' 당선
- ▲2012 제36회 이상문학상 우수상